

2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기억과 '유일 피폭국'의 언설

특정: 원대 일본사회의 형성과 미국
피노: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권혁태



■ (위) 히로시마 원폭돔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피폭 후 아기에게 젖을 물린 생존자의 모습, 원폭 버섯구름, 피폭 후 폐허가 된 히로시마



1.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중반은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대립’이 일어난 거의 ‘유일한’ 시기로 기록될 수 있다. 이 대립은 한일, 혹은 중일 간에 벌어졌던 역사 인식 문제와는 다소 다르다. 한일, 중일 간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이 정부와 민간 간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전개되어 양국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미일 간의 대립은 사실 정부 영역이라기보다는 주로 민간 영역에서 격렬하게 벌어졌고 또한 그 수습과정도 상대적으로 온화한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대립은 세 가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 하나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소위 ‘원폭 돔’(Atomic Bomb Dome)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역사 인식의 차이(1996년)이며, 두번째는 소위 ‘원폭 우표’라 불렸던 미국의 우표발행계획을

* **지은이** | 권혁태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의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에서 경제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야마구치대학(山口大学)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릿쿄대학(立教大学) 초빙연구원, 규슈대학(九州大学) 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종합 계간지 『황해문화』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일본의 평화 문제/재일조선인/미디어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東アジアの中の日韓交流』(공저, 東京:慶応大学出版会, 2007), 『朝鮮半島と日本の同時代史』(공저, 東京:日本経済評論社, 2005), 『반일과 동아시아』(공저, 소명출판, 2005), 『아시아의 시민사회』(공저, 아르케, 2003)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재일조선인과 한국 사회」(『역사비평』, 2007년 봄), 「일본의 이라크 인질사건과 '자기책임론'」(『동향과 전망』, 2006년 가을/겨울), 「集團の記憶, 個人の記憶 — 韓国とヒロシマがお互いに問いかけるもの」, 『現代思想』, 2003년 8월, 東京:青土社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한국 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연구되었음(과제번호: AM0005).

둘러싼 미일 간의 대립이고, 세번째는 워싱턴에 소재한 미국 우주항공박물관(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가 예정되었던 전폭기 ‘에놀라 게이’(Enola Gay)를 둘러싼 대립이었다.

구 산업장려관인 원폭 돔은 피폭 후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히로시마가 피폭의 상징물로 보존을 결정한 시설물이다. 그런데 이 시설물을 일본 측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세계문화 유산 등재 여부를 가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미국이 반대하고, 중국이 기권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원폭 돔의 세계문화 유산 등록이 1996년에 결정되었다. 두번째는 1994년 11월에 미국의 우편공사(USPS)가 제2차 세계대전 50주년 기념우표로 발행할 예정이었던 10장의 기념우표 중 하나에 히로시마 원폭 버섯구름을 도안으로 채용하고 그 하단에 “원폭 투하가 전쟁 종결을 앞당겼다”(Atomic bombs hasten the end of war, August 1945)라는 문장을 삽입한 것에서 불거졌다. USPS의 이런 계획이 발표되자, 일본 측의 반발이 커졌고 결국 미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미국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USPS가 발행계획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우표의 도안은 일본에 항복을 권고하는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으로 대체되었다. 세번째는 1990년대 중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제2차 세계대전 기획전의 일환으로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의 전폭기 에놀라 게이를 히로시마의 피폭 자료와 함께 전시할 계획을 발표했다가, 미국의 재향군인회 등의 격렬한 반발로 전시계획이 취소된 사건을 말한다.

1990년대 중반에 미일 간에 발생한 이 세 가지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과 원폭 투하에 대해서 미일 간의 역사 인식 상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원폭 투하로 전쟁을 조속하게 종결시켜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른바 ‘전쟁조기종결론’의 입장에서 서 있는 데 반해서, 일본 측의 주장은 전쟁 종결과 원폭 투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으며, 미국이 원폭 투하를 결행한 것은 다가오는 소련과의 ‘차가운 전쟁’을 대비한 냉전 대비용이었다는 것

이다.¹⁾ 물론 원폭 투하를 ‘냉전 대비용’으로 해석하는 일본 측의 입장이 반드시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전후에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미국의 원폭 사용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책임을 묻는 소리를 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²⁾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안의 대립은 일본정부와 미국정부와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미국 측에 대한 일본 민간 측의 대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

문제의 초점은 이 같은 미국 측의 일관된 ‘전쟁조기종결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역사적 기원으로 하는 격렬한 반미의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 반미를 내세우기보다는 피해와 가해의 구도를 해체하고, 핵병기 대 인간의 문제로 히로시마·나가사키 문제를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글의 본문에서 밝히겠지만 주로 1980년대 이후에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 경험을 국민적 기억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유일 피폭국’이라는 언설을 통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의 목적은 주로 1970년대까지 이뤄졌던 피해와 가해의 주체 해체가 1980년대 이후에 내셔널 메

1) 실제로 미 국무장관 제임스 번즈는 후일 그의 저서에서 소련이 대일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원폭을 사용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ジェームス F. バーンズ, 『率直に語る』, 東京: 中部日本新聞社, 1947. 영어 원본은 James F. Byrnes, *Speaking Frankl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7). 또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물리학자 블랙렛 교수는 “원폭 투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군사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의 차가운 외교전쟁의 첫번째 작전의 하나”였다고 말한다(P. M. S. 블랙렛, 『恐怖・戦争・爆弾: 原子力の軍事的・政治的意義』,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1951. 영어 원본은 P. M. S. Blackett, *Fear, war, and the bomb*, New York: Whittlesey House, 1949).

2)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의 원폭 투하에 대해 항의한 예는 피폭 직후, 패전 직전에 발표한 성명서가 유일하다. 1945년 8월 10일, 일본정부는 스위스정부를 경유해서 적십자 국제위원회에 일본정부의 항의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재 스위스 공사에 훈령으로 지시한다. 그 내용은 미국의 항공기가 히로시마 시에 “신형 폭탄”을 투하해 “다수의 시민을 살상”하였고 히로시마 시가 “궤멸”되었으며, 이는 군사시설이 없는 보통의 도시인 히로시마 시에 대한 민간인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폭격이며,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인류 문명에 대한 죄악이니, 따라서 전 인류 및 문명의 이름으로 미국정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비인도적 병기 사용을 즉각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미국 측의 일관된 ‘전쟁조기종결론’은 한국에서는 ‘식민지조기종결론’으로 둔갑되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역사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權赫泰, 『集團의記憶, 個人の記憶』, 『現代思想』 2003. 8, 東京: 青土社를 참조.

모리의 정착-‘유일 피폭국’ 언설의 보급으로 귀결되는 논리구조를 밝혀내는 데 있다.

2. 『맨발의 겐』의 나카자와 게이지와 반미

일본 본토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거의 50만 명에 달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약 30만 명이 사망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피폭자도 부지기수이다. 미국은 여전히 원폭 투하에 대해 그 어떤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 피해규모만을 놓고 생각하면, 일본사회의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보다 작아야 할 까닭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일본 사회가 친밀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1945년 8월 15일까지 ‘귀축영미’(鬼畜英美)라는 지극히 인종주의적 적대감으로 미국을 인식했던 일본사회가 천황 히로히토가 항복 선언을 한 8월 15일 이후, 하루아침에 갑자기 친미적인 정서로 바뀌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미국의 원폭이나 공습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미국을 싫어하거나, 나아가서는 증오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이 공공연하게 미국을 ‘증오’하는 언설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나카자와 게이지(中澤啓治)의 만화는 중요하다. 나카자와는 1970년대에 『맨발의 겐』(전10권)을 그린 만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만화는 일본에서 무려 1천만 권이 팔렸다. 세계 각국에 번역 소개된 대표적인 반핵평화 만화이다. 뮤지컬,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한국에도 번역 소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다만 ‘정의의 폭력’을 지나치게 확대 묘사하는, 눈에 거슬리는 몇 가지 장면을 제외하고는, 이 작품에는 히로시마의 경험을 보

편적인 반핵평화주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작품의 곳곳에 나타난다. 이 만화는 미국(인)에 대한 증오 대신에 핵무기에 대한 증오를 담고 있다.⁴⁾ 이 만화가 대중적으로,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초기 작품은 전혀 다르다. 보편적 반핵평화주의에 앞서 미국에 대한 인종적 증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나카자와는 1939년생이다. 피폭 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피폭으로 아버지와 두 동생을 잃었다. 그는 간판장이 일을 하다가, 만화가가 되고자 상경, 유명 만화가의 보조 일을 하였다. 상경 초기에는 피폭자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나 차별을 의식해 자신이 피폭자라는 사실을 숨겼고, 그래서 원폭 문제와는 전혀 다른 작품 그리기에 몰두했다. 피폭 후유증으로 고통 받던 어머니의 죽음(1967년)이 계기가 되어 그는 원폭 문제를 만화로 그리게 된다.⁵⁾

나카자와의 「검은 비를 맞고」⁶⁾(1968년 5월)라는 작품은 나카자와가 처음으로 원폭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검은 비를 맞고」의 플롯은 아주 단순하다. 히로시마 출신의 피폭자인 청부살인업자가 있다. 그는 원자폭탄으로 가족을 모두 잃었다. 온몸에 아직도 피폭 시의 화상으로 생긴 켈로이드(keloid) 상처가 남아 있다. 그는 미국을 용서하지 않는다. 히로시마에서 입은 상처 때문이다. 생활을 위해서 청부살인업자가 되었지만, 오직 미국인만을 죽인다. 히로시마에서 입은 상처 때문이다. 그는 알파벳으로 쓴 간판을 불편하게 여긴다. 술은 위스키를 마시지 않는다. 오직 청주만을 마신다. 청주가 일본 술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미국인이 휘두른 칼에 찔려 큰 부상을 입는다. 그리고 죽기 전에 원폭 후유증으로 실명한 원

4) 한국어판은 나카자와 게이지, 『맨발의 겐』(전10권), 아름드리미디어, 2000. 이 작품에 대해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와 비교한 권혁태, 「평화, 인간 그리고 일본」, 『당대비평』 제14호, 2001을 참조. 이하에서 전개되는 나카자와 게이지에 대한 분석은 권혁태, 「미국을 증오했던 피폭 만화가, 나카자와 게이지」(권혁태의 일본 읽기 27), 『프레시안』, 2009. 1. 13을 가필 수정한 것이다.

5) 中澤啓治, 『はだしのゲン』自伝, 東京:教育史料出版会, 1994.

6) 中澤啓治, 『黒い雨に打たれて』, 『黒い雨に打たれて』, 東京: DINOBOOKS, 2005.

폭 2세 소녀에게 자신의 눈을 기증한다.

그 다음에 발표한 「검은 비는 흐르는데」⁷⁾(1968년 7월)는 피폭 매춘여성의 삶을 그린다. 그녀는 피폭자이며, 미군에게 몸을 파는 양공주이다. 원폭으로 부모와 동생을 잃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다. 결혼할 상대가 있었지만, 그녀가 피폭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저 없이 그녀 곁을 떠난다. 그리고 그녀는 불안 속에서 아이를 낳는다. 원폭의 후유증은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고 그 때문에 시한부 생명을 이어 간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복수를 꿈꾼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쟁꾼들에게 매독 균을 옮길 거야! 그래서 매독으로 멸망시킬 거야!” 그녀의 복수는 자신의 몸에 퍼져 있는 매독 균을 미군에게 퍼뜨리는 것이다.

이 두 작품에서 펼쳐지는 나카자와의 세계는 『맨발의 겐』에서 전개되는 비폭력 평화주의의 보편성과는 거리가 있다. ‘핵무기를 없애자, 혹은 전쟁을 폐지하자’ 같은 고상한 평화주의 이념을 설파하지 않는다. 개인에 의한 처절한 복수를 그린다. 남성은 살인으로, 여성은 매독 균으로 복수한다. 그 복수는 복수하는 측의 성공적인 승리로 장식되지도 않는다. 복수는 원폭으로 상처받은 몸뚱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리고 복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때 복수를 극대화시키는 메타포로 등장하는 것이 인종⁸⁾과 여성이다. 인종주의적 장치는 백인 증오로 표현된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군사적·정치적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백인에 의한 일본인 말살로 그린다. 인종주의적 시선을 획득하기 위해서 피폭

7) 中澤啓治, 「黒い雨の流れに」, 『黒い雨に打たれて』.

8) 예를 들면 「검은 비를 맞고」의 주인공인 청부살인업자가 미국인에게 말하는 다음과 같은 대사들이 대표적이다. “나는 말이다. 네놈들 백인들이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꼴을 보고 싶어 이 직업을 택한 거라고”, “베트남에서 더럽혀진 다리로 일본 땅을 활보하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 이 양놈들아!”, “네놈들은 입으로는 품 나게 자껄이지만 속내는 더러운 참자 투성이라고!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껄이면서 뒤에서는 네놈들 양키는 나치보다 더한 학살을 저질렀어! 나치보다 더한 잔혹한 살인마들! 히로시마에 관광 올 시간이 있으면, 네놈들 나라에 있는 흑인 문제나 해결하라고!”

자를 일본인과 동일시하고, 이를 다시 베트남으로, 유대인으로, 흑인으로 확장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 이런 시선은 그의 출세작인 『맨발의 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작품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메타포는 여성이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은 ‘순결한 여성’이다. 아니 ‘순결해야 할 여성’이다. ‘순결해야 할 여성’이 원자폭탄으로 상처를 입었다. 켈로이드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거나, 방사능 오염으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여성이다. 원폭은 여성의 ‘순결함’을 파괴하는 악의 화신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 속에서 여성 피폭자의 비극은 결혼과 출산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온몸에 남아 있는 화상 흔적 등을 통해서 극대화된다.⁹⁾ 원폭이 여성의 ‘순결함’을 파괴하였고, 이 때문에 결혼, 출산을 못하게 된 것으로 원폭의 비극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피폭자의 수기에서도 이 같은 사연을 종종 볼 수 있다. 피폭자 여성은 피폭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이종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나카자와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피폭자 남성은 대단히 강하다. 그리고 폭력적이다. ‘정의의 폭력’을 휘두르는 피폭자 남성은 대체로 ‘순결한 여성’을 보호하는 강한 남성이다. 연약하고 순결한 여성의 비극(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의 대척점에 강한 백인을 두고, 이 강한 백인의 대척점에 강한 일본인 남성을 둔다. 그래서 백인에 의해 손상된 여성의 순결성은 강한 남성에게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게 된다. 나카자와 작품이 순결한 여성의 상처를 그리면 그릴수록 이는 강한 남성성을 자극한다. 경우에 따라서 이는 강한 일본인 남성의 복원이라는 형태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9) 「검은 비는 흐르는데」의 주인공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숙명에 울었다. 저 원폭 때문에……. 나는 아이가 오체만족으로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다. 나는 아이를 위해 결혼에 대한 꿈을 접고 죽어라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을 잊을 수는 없었다. 의상실 창가에 진열되어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혀 놓은 마네킹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네킹을 때려 부수고 싶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초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미국인 남성에 대한 분노가 그의 출세작인 『맨발의 겐』에서는 왜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까? 피폭자들의 초기 수기를 보면 미국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폭으로부터 10일 후에 사망한 남성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미국 놈들”(糞野郎)이라고 답했다고 한다.¹⁰⁾ 또 피폭자인 세키 지에코(関千枝子)는 피폭 직후의 참상 속에서 친구가 “일본도 저런 폭탄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미국에 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니 괜찮다. 일본은 꼭 이긴다”¹¹⁾고 말했음을 증언한다. 피폭자의 다음 증언은 매우 적나라하다. “아 전쟁에 졌다. 일본은 안 된다”라고 어느 아저씨가 말한다. 그러자 다른 아저씨가 손을 내저으며 ‘그래도 일본의 신예기 수십 기가 미국 서해안으로 날아가서 완전히 마을을 깨부수었다고! 그러자 미국 여자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전쟁을 그만두자고 한다고 하더라!’. 우리들은 모두 놀라서 ‘그게 정말이야!’라고 모두 동시에 외쳤다. 그러자 ‘회람판에 그렇게 쓰여 있단니까!’¹²⁾라고 말한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1960년대에 그려진 나카자와의 초기 만화가 인종주의적 반미와 복수를 그려 내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폭자의 기억이 이 같이 인종주의적으로, 혹은 미국에 대한 분노로 표출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실제로 위의 두 작품을 선뜻 출판하려는 출판사는 없었다고 한다. 특히 큰 출판사는 거의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인종주의에 더해, 미국에 대한 복수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¹³⁾ 이 작품이 그려진 1960년대는 ‘친미국가 일본’의 기반이 거의 만들어지고 있었던 시기였다. 미국과의 ‘동맹’ 하에 ‘잘 나가던’ 당시 일본에, 미국에 대한 복수를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일본사

10) 堀輝人, 「熱い, 体が焼ける」, 秋田正之 編, 『星は見ている : 広島1中被爆者の家族の手記』, 東京 : 鱗書房, 1954.

11) 関千枝子, 『広島第二県女二年西組— 原爆で死んだ級友たち』, 東京 : ちくま文庫, 1988.

12) 平戸敏子, 「竹槍」, 吉松祐一 編, 『白夾竹桃の下』, 東京 : 社会科学研究出版社, 1951.

13) 위의 中澤啓治, 『はだしのゲン』自伝을 참조.

회가 이 작품을 출판하는 것을 주저했던 것처럼, 피폭자들의 미국에 대한 분노도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피폭자들은 복수 대신에, 피폭 경험을 보편적 평화를 통해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에 대한 분노는 평화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휩쓸려 버렸다. 피폭자가 분노할 공간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피폭자는 모두 평화의 전도사라는 ‘성인’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피폭자는 한 몸뚱이가 되어 버렸고, 민족도 계급도 젠더도 없는 초역사적인 공허한 ‘주체’가 되어 버렸다. 나가자와도 1970년대에 『맨발의 겐』을 그려 상업적으로 성공하면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피폭 경험으로부터 가해와 피해의 주체를 특정하고, 그 주체에 책임을 묻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기억의 환기나 그 재생산이 왜, 어떤 이유로 작동불능의 상태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작동불능의 상태가 주체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체의 해소가 어디로 귀결되었는가를 원폭비명 논쟁과 ‘유일 피폭국’의 사상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3. 원폭 위령비 논쟁—주체의 해소

히로시마의 비극과 비극에 대한 기억장치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기념물에 원폭 위령비가 있다. 평화공원 가운데에 자리 잡은 아치형 건조물 아래에 조용하게 자리 잡은 원폭 위령비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¹⁴⁾

安らかに眠って下さい / 過ちは繰り返させぬから

14) 원폭 위령비에 대한 분석은 권혁태, 「원자폭탄은 ‘누구’의 잘못인가?」(권혁태의 일본 읽기 5), 『프레시안』 2008. 3. 31을 가필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친절하게,

Let all the souls here in peace; / For we shall not repeat the evil

라는 영문번역이 해설과 함께 곁들여져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편안하게 잠드소서. 잘못은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가 된다. 이 글귀를 보게 되면 묘한 감동과 함께 그 감동을 제어하는 또 다른 위화감이 밀려온다. 대상에 대한 느낌이란 대상 그 자체에서 생성되는 것이지만,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 글귀를 보고 무엇을 느낄까? 특히 잘못?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원폭을 투하한 미국의 잘못? 아니면,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잘못? 전쟁이라면 1941년 진주만 습격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1930년대 ‘만주’ 침략을 말하는 것인가? 혹은 1910년 조선 식민지화? 혹은 1894년 청일전쟁?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 일본의 잘못이라 한다면, 일본의 누구 책임인가?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히로히토? 아니면 도쿄재판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A급 전범들? 혹은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포로 학대와 민간인 학살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1000명 가까운 B, C급 전범들? 이 중에는 약 20여 명의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다. 원폭 투하가 일본의 침략전쟁 탓이라고 해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보통의 민간인이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가? 침략전쟁을 막기는커녕 뒤에서 이를 응원했으니까?

주어를 둘러싼 의문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주어 불분명의 문법구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주어 불분명의 이 문장에 히로시마가 전후 원폭의 비극을 둘러싸고 격투해 온 역사와 그 한계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그리고 감동과 그 감동을 제어하는 위화감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

원폭 위령비는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건립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히로시

마 평화공원은 히로시마 평화도시 건설법과 건설법에 입각한 부흥과정의 산물이다. 원래 원폭 위령비의 설계는 일본계 미국인에게 위탁되었지만, 미국인에게 설계를 맡길 수 없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미국인 설계자의 안을 기초로, 평화공원을 설계한 단계 겐조(丹下健三)가 최종적으로 설계했다.¹⁵⁾

이 원폭 위령비의 해석을 둘러싸고, 특히 주어-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히로시마 피폭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 준다. 히로시마의 공식적인 설명은 일관되어 있다. 이 원폭 위령비의 글귀를 만들고 직접 휘호를 쓴 것으로 알려진 사이가 다다요시(雜賀忠義) 당시 히로시마 대학 교수는 후술하는 인도인 법관 라다비노드 팔(Radhabinod Pal) 박사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원폭 위령비의 글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히로시마 시민임과 동시에 세계 시민인 우리들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서약한다. 이는 전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로 통하는 히로시마 시민의 감정이며 양심의 외침이다. '원폭 투하는 히로시마 시민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은 세계 시민에 통용되지 않는 말이다. 그런 좁은 입장에 서게 되면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며, 명령 앞에 설 자격은 없다.¹⁶⁾

또 1970년 3월에는 아마다 세쓰오(山田節男) 당시 히로시마 시장은 원폭비문 변경 여론에 대해, "비문은 바꾸지 않겠다. 비문의 주어는 세계 인류이며, 인류

15) 사실 평화공원 설계안이 전적으로 전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평화공원은 단계가 1942년에 일본건축학회가 실시한 대동아건설영조계획(大東亞建設營造計画) 공모전에서 1등으로 당선한 작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설계안이 1930년대에 일본에서 등장한 '근대의 초극'에 대응한 건축양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히로시마의 평화가 전전적 세계관과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시사적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권혁태, 「기억공간의 재구축 : 히로시마 평화공원, 개발과 평화이념 사이에서」, 『제3회 AURI 인문학 포럼 자료집 —공간의 인문학적 해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11. 7를 참조.

16) 雜賀忠義, 「碑文について」, 『広島市お知らせ』(広島市市政広報 第31号), 1952. 9. 1.

전체에 대한 경고”¹⁷⁾라고 말한다. 그리고 1983년 11월 3일 히로시마 시는 원폭 위령비 옆에 영문과 일문으로 된 설명문을 비치한다. 설명문은 이 글귀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비문(글귀)은 모든 사람들이 원폭 희생자의 명복을 빌어 전쟁이라는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글귀이다. 과거의 슬픔을 참고 증오를 넘어서 전 인류의 공존, 번영과 진정한 세계 평화의 실현을 바라는 히로시마의 마음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원폭 위령비의 주어-주체에 대한 히로시마의 입장은 분명하다. 주체는 특정의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라, 세계 시민-전 인류이며, 잘못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원폭 그 자체이다. 따라서 잘못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원폭을 발명한 근대적 문명이며, ‘반복’해서 안 되는 것은 근대 문명의 결과인 전쟁 혹은 원폭의 사용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실인 원폭 투하에 대한 가해와 피해의 주체를 해소하고, 이를 문명과 인간의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히로시마·나가사키의 ‘비극’을 인류의 평화에 대한 보편적인 염원으로 탈역사화시킨 것이다.

사실 주체의 희석화-해체는 물론 원폭 위령비의 건립기반이 되었던 평화도 시건설법이 미군정기에 만들어졌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미군정기에는 미국을 ‘원흉-가해의 주체’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반드시 미군정기의 ‘검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원자폭탄(핵)의 ‘엄청남’에 압도되어 원폭 피해를 기존의 전쟁과 분리하고 원폭을 과학문명의 정점-문명의 종말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피폭자의 수기에서도 발견

17) 「広島市長山田節男氏に訊く」, 『政治経済セミナー』, 東京: 政治経済セミナー社, 1970. 3.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45년 12월 1일에 히로시마에서 미국의 전략폭격조 사단이 행한 면접조사에서 남성(58세)은 “히로시마가 저것 하나(원폭—인용자)로 이 정도로 폐허가 되었으니, 이런 것은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오직 무섭기만 했다”고 말한다. 원폭의 파괴력의 엄청난데 압도되어 공포감 이외의 다른 감정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마모토대학(熊本大学) 의학부 출신의 의사인 남성(44세)은 히로시마에서 1945년 12월 5일에 이루어진 면접조사에서, “역시 과학입니다. 과학이 가장 발달한 곳이라 생각했는데, 원자폭탄이라 들으니 완전히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¹⁸⁾라고 말한다. 피폭자들이 자신들의 수기에서 구체적인 반미적 증오감을 드러내기보다는 피해의 참상을 증언한 후에 반드시 평화에 대한 의지로 맺고 있는 것은 원폭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감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원폭 위령비에서 주어를 생략해 주체를 ‘전 인류’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주체를 해체, 혹은 희석화하고 이를 추상화하는 것은 피폭자들의 이 같은 정서를 일정부분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을 가해국으로 지칭하고 이를 통해 반핵운동이 반미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핵운동이 반미운동으로 ‘오해’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시의 각종 자료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1954년 9월 22일에 열린 미야기 현의 제1회 원수폭 금지 서명운동 발기인 대회에서 참가자 중의 한 사람은 “특정 국가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전세계에 호소한다. 특정 정당, 단체, 개인의 이해를 이 운동에서 들여와서는 안 된다”, “영·미·소에 호소하여야 되며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¹⁹⁾라고 발언한다. 이와 같은 발언은 반핵운동이 반미운동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반미운동이 반핵운동의 통일

18) 『原爆被爆者等面接記録—米国戦略爆撃調査団資料—テープ部門』, 広島:財団法人広島平和文化センター, 1986.

19) 『原子兵器反対運動協議会ニュース』no.1, 1954.8.1.

전선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는 이후에도 계속된다. 예를 들면 미야기 현 이시마키(石巻)의 노조원은 “이시마키에서도 자유당 시장이 이 운동에 공산당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반미로 될 우려가 있으니 협력할 수 없다”고 하다가, 후에 서명 참가자가 많아지니 시장도 협력해 시민대회에 시장 스스로가 참석했다고 증언하고 있다.²⁰⁾ 또 반핵서명운동의 주도자인 야스이 이쿠(安井郁)는 1957년 3월 7일 『도쿄신문』에 실린 「항의 선단과 세론—대중감정을 따뜻하게 이해하자」는 시론에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억눌려 있었던 일본 국민의 분노가 1954년 3월 비키니 사건으로 폭발”하여, “원수폭 금지 운동이 전국민적인 규모로 전개될 조건이 성숙했다”면서, “운동을 감정적인 반미운동으로 하지 않고 소련을 포함한 모든 원수폭 보유국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주도면밀한 배려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사히신문』에도 “원수폭을 없애자”라는 공통의 바람이 있다고 해도, 그 바람을 내걸고 특정의 정치의식으로 전체를 끌어가려거나, 특정국에 대한 반항운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운동이 어딘가에서 분열할 위험이 있다”²¹⁾는 기사가 실려 있다. 서명운동의 발신지인 도쿄의 스기나미(杉並) 구에서 1954년 6월 20일에 개최된 원수폭 금지 서명운동 제4회 실행위원회에서 야스이는 운동의 기본 방침을 “① 일당일파의 운동이 아니라 전국민, 전국민의 운동으로 한다. ②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반미운동이 아니다). ③ 인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운동이며 정치운동이 아니다”²²⁾라고 밝히고 있다.

1950년대에는 반핵평화운동이 반미운동으로 ‘발전’하거나, 혹은 ‘오해’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반핵평화운동단체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가를 새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0) 『原水爆禁止運動全国協議会全国会議事録(要録)』, 1955년 1월 16일.

21)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 『資料第3回原水爆世界大会に寄せられた反響』, 1957년 8월 15일.

22) 『水爆禁止署名運動杉並ニュース』第2号, 1954년 5월 27일.

이런 관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건립 초기부터 존재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은 라다비노드 팔의 발언이다. 인도의 재판관이면서 법학자인 그가 이 ‘주어논쟁’의 입구에 자리 잡게 된 것은 1946년 일본에서 열린 극동군사재판(속칭 도쿄재판)에 인도를 대표해서 판사로 파견된 데서 비롯된다. 도쿄재판에서 ‘일본 무죄론’을 주장해서 일본의 우파에게 추앙받는 존재가 되었던 그가 1950년 11월 히로시마를 방문해 원폭 위령비에 대해 행했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전해지고 있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라니! 잘못은 누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 (이 글귀를 보는 한) 분명히 일본인이 일본인에게 사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기리는 것은 원폭 희생자의 영혼인데, 일본인이 원폭을 투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투하한 쪽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두 번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납득이 간다. 이 잘못이 만일 태평양전쟁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일본의 책임이 아니다. 전쟁의 씨앗은 서양제국이 동양침략을 위해 뿌린 것이기 때문이다.²³⁾

팔 박사의 논지는 분명하다. 주어 불분명의 이 글귀를 두고, 팔은 주어는 명백히 일본인이며, 일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원폭을 투하한 것은 미국이니, 원폭을 투하하지도 않은 일본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원폭 투하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결과라고 한다면 하더라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23) 『中国新聞』 1952. 11. 4.

동양을 지키기 위한 자위전쟁이었다는 것이다.²⁴⁾

1963년에 『대동아전쟁공정론』을 써 일본의 침략전쟁을 옹호한 하야시 후사오(林房雄)는 1969년 8월에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인다. 그는 위령비는 “낡은 상처를 매물로 내놔서 가련함과 배풀기를 구걸하는 거지 근성의 상징”이라면서 “일본인의 정신적 재생을 위해 이 치욕적인 기념품은 철거해야 한다. 다행히 히로시마에는 바다가 있다. 태평양까지 운반할 수고를 덜 수 있다. 원폭 돔과 위령비를(히로시마 앞 바다인) 세토나िका이(瀬戸内海)에 가라앉혀라!”²⁵⁾라고 말한다. 하야시는 원폭 위령비와 원폭 돔을 일본 역사의 치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패배의 상징물인 셈이다. 따라서 다수 일본인의 희생과 일본의 패배를 기억하는 이 기념물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970년 2월에 창립된 ‘원폭 위령비를 바로잡는 모임’이라는 단체는 히로시마 시장에 제출한 청원취지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인에게는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있다. 패전 점령하의 감각으로 점철된 이 굴욕의 문자가 피폭의 땅 히로시마시에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양심에서 볼 때 부조리하다. 비문 그 자체가 잘못”²⁶⁾이라고 말한다. 또 1996년 8월, 히로시마를 방문한 당시 자민당 국회의원 가메이 시즈카(亀井静香) 중의원 의원은 이 위령비를 보고, “이곳 평화공원에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라니! 일본군이 원폭을 투하하지도 않았는데”라고 말한다. 그리고 2005년 7월에는 27살의 우익 청년이 위령비에 새겨져 있는 “잘못”이라는 부분을 해머로

24) 일본의 우파가 ‘도쿄재판 부당론’의 한 축으로 ‘원폭 투하 부당론’을 전개할 때 위에서 소개한 팔 박사의 논지는 곧잘 인용되지만, 사실 팔 박사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래 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훌륭한 결의이다. 일본이 만일 재군비를 바란다면 이는 희생자의 영혼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원폭 위령비)를 쓴 당사자가 훨씬 더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中国新聞』 1952. 11. 4).

25) 林房雄, 『原爆ドームを瀬戸内海に沈めよ』, 『月刊ペン』, 1969. 8.

26) 原爆慰霊碑を正す会, 『請願書・原爆慰霊碑・碑文改正の件』, 岩垂弘・中島竜美 編, 『日本原爆論大系』(제7권), 東京: 日本図書センター, 1999.

훼손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같이 정치적 우파에 속한 사람들의 ‘비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원폭 사용국인 미국에 대해 명확한 비판을 하지 않는 일본정부나 전후 일본사회에 대한 비판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 진주만 습격 등 일본의 침략전쟁과 원폭 사용을 인과(因果)관계로 파악할 경우, 원폭 사용에 대한 비판이 침략전쟁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었다. 따라서 침략전쟁과 식민지화를 비판하고 일본의 가해책임을 명확히 한 다음, 미국의 원폭 사용에 대해 규탄하고, 현재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절대적 평화주의의 입장이 관철되기 어려운 일종의 ‘자기분열적인 비틀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서 있는 셈이다. 결국 이런 ‘비틀림’은 히로시마·나가사키를 미국 대 일본, 혹은 일본 대 아시아라는 구도에서 한 발 비켜서 핵무기 대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폭 위령비 글귀를 둘러싼 ‘주어논쟁’은 공식적으로는 일단락 된 셈이다. 주어 없는 이 글귀의 주어는, 혹은 영문으로 새겨진 ‘we’는 역사에서 왔으며, 역사에서 ‘세탁’된, 탈역사화된 인류가 된 것이다. 따라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을 평화이념으로 보편화하려는 히로시마의 고뇌가 여기에 담겨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말한 이 위령비를 보고 느끼게 되는 ‘감동’의 실체는 밝혀진 셈이다. 하지만 아직 감동을 제어하는 ‘위화감’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이는 침략과 침략전쟁이라는 가해와 원폭이라는 피해 사이에서 ‘갈등’해 온 전후 일본사회의 비틀림이 이 글귀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히로시마·나가사키를 보고 “피해 사실만 강조하고 가해 사실은 은폐하려 한다”는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시선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탈역사화된 히로시마의 원폭관에 대한 위화감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 이 같은 탈역사화된 히로시마의 원폭관이 1980년대 이후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가를 ‘유일 피폭국’의 언설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4. 주체의 복원과 ‘유일 피폭국’의 사상

다행히 (1945년) 8월 15일에 (전쟁은) 끝났다.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나가사키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비참한 경험을 했지만, 원자폭탄으로 전쟁이 끝났다, 라는 식으로 머리로 정리를 한다. 지금 생각해 보니 (원폭은)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은 2007년 6월 30일, 피폭지인 나가사키현 선출의 국회의원인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당시)이 대학 강연회에서 한 말이다. 사회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발언으로 알려진다. 이 발언은 일본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다 주었다. 신문 등은 다음 날 1면 기사로 보도하거나, 사설 등을 통해 “원폭에 대한 국민감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실었다. 그리고 피폭자 단체를 포함한 평화단체 등은 연일 비판과 항의의 성명서를 쏟아냈다. 사실 이 같은 규마 발언은 원폭 투하에 대해 단 한 번의 공식 항의도 하지 못한 채로 미국의 핵우산과 강력한 미일동맹 하에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일본의 전후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원폭 투하가 결과적으로 일본에 ‘번영’을 가져다주었다는 역사적 현실이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규마의 역사인식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드러낼 때, 무엇을 근거로 또 누구를 주체로 삼는가이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일본을 ‘유일 피폭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이른바 내셔널 메모리를 통한 주체의 복원이다.

예를 들면 국민 신당의 가메이 히사오키(龜井久興) 당시 간사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유일 피폭국으로 핵 폐절(廢絶)을 향해 주장과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²⁷⁾이라 말했고, 전국 보험단체 연합회는 당시 아베 수상에게

27) 『朝日新聞』, 2007. 7. 1.

“세계 유일의 피폭국 정부의 관료가 이 같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²⁸⁾는 항의문을 보냈다.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정치부 편집위원이 작성한 「‘폐절’과 ‘핵우산’의 겹」이라는 기사에서 “‘유일 피폭국’으로서의 역사를 감안해”²⁹⁾라고 쓰고 있다. 『아사히신문』 7월 4일자 및 5일자의 ‘소리’ 난에는 규마 발언에 대한 투서가 실려 있는데, 이 중에서도 “유일 피폭국의 방위대신이라는 사람”³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赤旗)는 7월 3일자의 「수상이 해야 할 일은 규마 대신의 파면」이라는 기사의 해설에서 “이번 발언은 ‘유일 피폭국’으로서…… 각료로서 너무나 무책임하며”라고 쓰고 있고, 다음 날인 7월 4일자의 두 개의 기사에서도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좌우가 양쪽에서 이 발언에 대해 공격을 퍼붓고 있는 셈이다. 결국 규마는 장관직을 사임하였고, 곧 이어서 벌어진 참의원 선거에서 규마가 추천한 후보가 낙선하는 등, 자민당은 참패하였다. 규마의 이런 입장이 사실 새롭다고는 볼 수 없다. 1975년 10월 31일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당시 히로히토 천황이 원폭 투하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규마와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을 해 피폭자 단체가 항의 성명서를 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선언에 대한 일본사회의 반응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의 중의원·참의원은 북한에 대해 발표한 항의 성명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경험한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점에 비추어, 모든 나라의 핵실험에 반대하며, 북한의 핵실험에도 엄중히 항의함과 함께, 북한이 바로 모든 핵병기 및 핵계획을 방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쓰고 있다. 일본 공산당도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면서 “일본은 유일의 피폭국이며, 북한의 이웃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번 달의 국제연합 안전

28) 『朝日新聞』, 2007. 7. 3.

29) 『毎日新聞』, 2007. 7. 3.

30) 『朝日新聞』, 2007. 7. 4 및 7. 5.

보장이사회의 의장국이기도 합니다”³¹⁾라고 말한다. 공명당은 “우리나라는 유일의 피폭국으로서 모든 핵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이야말로 핵 폐절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³²⁾라고 말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간사장인 간 나오토(菅直人) 담화를 통해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하여, 국제 사회의 진지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유일 피폭국으로서 단연코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항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야마구치(山口) 현은 지사 및 의회 명의로 “핵병기를 폐절하고 항구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유일 피폭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전 인류의 염원”이라고 하고 있고, 또 교토(京都)부 무코(向日)시는 “우리는 유일 피폭국민으로서 또 세계평화도시선언시의 시장 및 시의회의장으로서 이번 폭거를 시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고 중대한 불안을 주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행위로 보고 엄중하게 항의한다”라고 쓰고 있다. 물론 원수금이나 원수협, 노동조합, 그리고 평화운동 단체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항의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특징적인 것은 그린피스 재팬은 사무국장 호시카와 준(星川淳)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서 “일본정부는 유일 실전 피폭국으로서의 일본이 계속해서 비핵 3원칙을 준수하고 핵보유국의 저항으로 암초에 걸려 있는 핵 불확산체제의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일 피폭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계에서 오직 ‘일본(인)만이 피폭되었다’는 뜻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비키니 섬 피폭까지를 포함해 피폭당한 국가 혹은 민족은 오직 세계에서 오직 일본뿐이라는 뜻이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유일 피폭국’이라는 단어는 피폭 체험의 역사적 계승

31) 『赤旗』, 2006. 10. 11.

32) 『公明新聞』, 2006. 10. 11.

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면에서 일본의 반핵평화에 대한 의지를 ‘주체’로서 표상하는 ‘전국민적 기호’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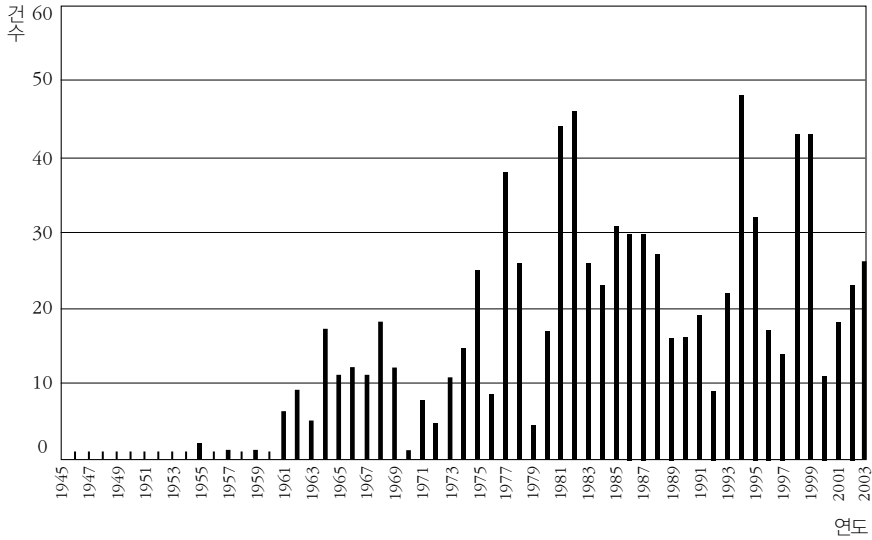
물론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시이 가즈히코(石井和彦)는 자치체의 비핵자치체 선언 중에서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무려 62%에 달한다고 말한다. 이시이는 이 표현에 대해 사상 최초의 피폭자는 미군 병사이며, 많은 조선인이나 미군 포로도 많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 그리고 비키니 섬 피폭 시에 많은 태평양의 원주민도 희생이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은 역사적 사실에 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³³⁾ 또 하루나(春名幹男)나 이치바(市場淳子)의 연구에서도 조선인 피폭자 등의 존재를 들어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³⁴⁾ 이 같은 연구는 적어도 1960년대 후반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재한 피폭자를 포함한 비(非)일본인 피폭자의 존재를 밝혀 피폭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일본의 전후 책임뿐만 아니라 피폭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일본 국가’라는 사슬에서 해방시켜, 반핵·비핵의 정당성을 보편적 가치로 격상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연구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첫째,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의 부당성에 중점을 둔 나머지, 이 표현 사용의 역사적 정착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표현이 얼마나 사실에 반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둔 나머지 이 표현이 왜 어떤 논리에서 사용되어,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 경험을 집합적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일본인 피폭자의 존재와 ‘유일 피폭국’이

33) 石井和彦, 「日本は『唯一の被爆国』でない」, 月刊のニューズレター, 『地球の一点から』(第14号), 東京: 法政大学西田勝研究室, 1989. 12.

34) 春名幹男, 「唯一の被爆国からの脱皮—被爆者とヒバクシャの連帯のために」, 『世界』491, 1986. 8; 市場淳子, 「唯一の被爆国から開かれた被爆国へ—郭貴勳さん勝訴の意味」, 『世界』692, 2001. 9.

〈도표〉 일본 국회에서의 '유일 피폭국' 연설 등장 건수(1945~2003년)



라는 용어 사용의 상관관계의 문제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유일 피폭국'이라는 연설이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비일본인 피폭자, 특히 조선인 피폭자의 존재가 거의 밝혀지지 않았던 시기(1970년대까지)에는 '유일 피폭국'이라는 연설은 그다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선행연구는 비일본인 피폭자의 존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1980년대 이후에 비일본인 피폭자의 존재가 분명해진 이상, 이제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유일 피폭국'이라는 연설은 195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이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비일본인 피폭자의 존재가 이미 사실로 판명된 1980년대 이후이다. 그렇다면 한다면 '유일 피폭국'이라는 연설의 정착은 단순히 비일본인 피폭자의 존재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닌 것이 된다. 따라서 '유일 피폭국'이라는 연설의 행행이 비일본인 피폭자의 존재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선 정치 언설권에서 ‘유일 피폭국’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국회회의록」에 등장하는 ‘유일 피폭국’의 발언 빈도를 보기로 하자.³⁵⁾ 앞의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회회의록」에 ‘유일 피폭국’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1955년 4월 30일이다.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국무대신 다카사키 다쓰노스케(高橋達之助)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대량 파괴병기 감축과 군축의 병행을 주장하는 파키스탄과 터키의 주장에 동조한 이유를 “원자 폭탄을 맞은 유일 피폭국으로서의 특수한 입장”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 이와 유사한 발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53년 7월 29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도 오카 료이치(岡良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반미적인 생각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원폭 세례를 받은 오직 하나의 민족이다. 세계 과학자의 예지의 최고라 하는 원자력이 개발되고, 그 원자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무기가 되어 일본인 23만 명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으며, 게다가 이 같은 폭발재해의 사고에 대해 근대 의학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 ‘유일 피폭국’이라는 언설은 일본의 피폭 경험과 세계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주체로서 드러내는 형용구로서 사용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높고 낮음에 굴곡은 있지만, 1980년대 이후 등장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사용 빈도를 보수, 혁신으로 나누어서 볼 때, 적어도 1980년대에는 보수와 혁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981년 이 언설의 국회 안에서의 사용 빈도는 70회(중복사용 포함)에 이르는데, 이 중 정부 자민당이 모두 24회로 가장 많지만, 사회당과 공산당이 각각 16회, 21회를 차지해, 이 두 개의 혁신정당을 합치면 자민당의 사용 빈도를 웃돌고 있다.

35) 일본의 국회회의록 검색 시스템(<http://kokkai.ndl.go.jp>)을 참조.

다음으로 비핵 자치체 선언을 필자가 분석한 결과, 총 223건의 비핵 선언 중에 실로 132곳의 자치체(59.2%)가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⁶⁾ 이를 지역별로 보아도 유의미한 지역별 편차는 보이지 않는다. 피폭 도시인 히로시마현을 보면, 모두 13개 자치체가 비핵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중 1985년에 선언한 하쓰가이치시(廿日市)의 경우만 ‘유일 피폭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가사키현의 경우는 선언 자치체 10건 중, 6건이나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경우는, 13곳의 선언 자치체 중에 6곳의 자치체가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히로시마를 예외로 하면, 오키나와나 나가사키에서도 이 표현은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사용빈도를 보면, 선언운동이 가장 고양되었던 1980년대의 선언 건수 165건 중에서 97건(58.8%)이 ‘유일 피폭국’을 사용하고 있고, 1990년대는 25건 중에서 14건(56.0%), 2000년대는 30건 중 21건(70%)이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에는 선언에 참여한 14곳의 자치체 모두가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일 피폭국’의 사용 비율이 1980년대 이후에,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비핵 자치체 선언 과정에서 이 표현 사용에 반대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82년에 선언에 참여한 오사카의 히라가타시(枚方市)는 1989년에 ‘세계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발표했다. “강제연행으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와 있던 재일 조선인이나 중국인 등이 있으니 일본인만이 피폭자라는 것은 사실에 반한다”³⁷⁾는 이유였다.

36) 일본 비핵선언 자치체 협의회(日本非核宣言自治体協議会)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전국의 1,870 자치체 중에 1,450 자치체가 비핵선언에 참여해, 선언율은 77.5%에 달한다. 본고에서는 선언문을 입수 가능한 223곳의 자치체에 한정해 분석하고 있다(<http://www.nucfreejapan.com>).

37) 『朝日新聞』 1989. 3. 4.

다음으로는 피폭 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평화선언과 ‘유일 피폭국’과의 관련을 살펴보자. 히로시마는 1947년부터 2006년까지 1950년을 제외하고 총 59회의 평화선언을, 나가사키는 1948년부터 2006년까지 1950년을 제외하고 총 58회의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그 중,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이에 가까운 표현을 포함해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히로시마의 경우, 1978년이 처음이며, 1983~1987년, 2003년, 2004년의 총 8건이다. ‘최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1947년, 1953년, 1970년, 1985년(중복), 1991년, 1995년, 1996년, 1998년으로 총 8건이다. 나가사키에서 ‘유일 피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1986년이 처음으로, 2002년과 2003년을 합쳐 총 3건에 불과하다. ‘최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1982년의 “세계 최초의 피폭국으로서”가 처음이며, 이후 1991년, 1994~1996년, 2000년의 총 6건이다. ‘유일’과 ‘최초’를 사용한 것은 히로시마가 15건(한 번은 모두 사용), 나가사키가 9건이다. 평화 선언이 각각 59회와 58회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유일’이든, ‘최초’든 모두 1970년대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1980년대 이후 사용 빈도가 급증했다는 특징이 있다.³⁸⁾

다음에는 ‘유일 피폭국’의 미디어 등장 빈도를 보자. 『아사히신문』의 경우, 1967년에 3건, 그리고 1975년에 6건이 등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1940~70년대까지 이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 후 1985년에는 ‘갑자기’ 19건이 등장한 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 경향에 들어가나, 전체적으로 연간 두자릿수 빈도를 기록하고 있다.³⁹⁾

그렇다면 평화운동 진영에서는 어떻게? 운동단체의 각종 성명이나 회의록에서 ‘유일’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55년 1월에 원수폭 금지 서명문

38) HIROSHIMA PEACE SITE(<http://www.pcf.city.hiroshima.jp>) 및 나가사키 신문 사이트(<http://www.nagasaki-np.co.jp>). 鎌田定夫 編, 『広島長崎の平和宣言』, 東京: 平和文化, 1993.

39) 아사히신문사 검색 시스템 ‘구라(蔵)’에 의함.

동전국협의회가 작성한 「비키니 수폭 실험의 영향과 일본에서 원수폭 금지운동 (세계에 대한 보고)」⁴⁰⁾이 최초이다. 그 이후로도 이 표현은 잘 사용된다. 1957년 세계대회를 앞두고 개최되었던 제3회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국제 예비회의에서도 협회 이사장이면서 국제준비 센터 의장인 야스이 이쿠(安井郁)는 ‘원자전쟁체제와의 대결’이라는 보고를 행하는데, 이 보고 중에서 세계대회의 장소가 된 일본을 “세계에서 유일의 원수폭 피재국”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1958년 3월 31일, 소련이 핵실험 중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피폭자 와타나베 지에코(渡辺千恵子)는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은 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인 피폭국인 우리나라가 세계에 대해서 가해국이 되는 것을 의미”⁴¹⁾하는 것이라 말한다. 또 다음 해인 1959년 비키니 섬 피폭 5주년을 맞이하여 발표된 ‘야이즈(焼津)선언’에서도 “비극의 재현을 저지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국민……”⁴²⁾이라며 주체로서 일본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1959년에도 가나가와현이 일본 원수협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세계에서 유일의 원폭 피해 국민으로서 제 국민에 앞서 원수폭 금지운동을 시작하여 세계평화를 지키는 사업에서 커다란 공헌을 해온 일본의 운동”이라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핵실험 재개를 선언한 소련에 보낸 항의문 중에서도 일본 원수협은 스스로를 “세계에서 유일의 원폭 피폭국의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의 사용 빈도에 대해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위에서 말한 각종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항의 성명에서 유추하여 볼 때, 1950년대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낮아졌다고는 보기 힘들다.

40) “일본에서 원수폭 금지운동이 발전하고 있는 두번째 이유는 일본인이야말로 원폭의 세례를 받은 최초의 유일의 국민이라는 점”(『ビキニ水爆実験の影響と日本における原水爆禁止運動(世界への報告)』 1955. 1).

41) 『第4回原水爆禁止世界大会議事速報』, 1958. 8. 12.

42) 『ビキニ被災五周年 原水爆禁止 核武装反対日本大会焼津宣言 決議』, 1959. 3. 1.

5. 결론을 대신해서

이상 살펴본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원폭 위령비 논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해 책임에 대한 추궁이 일찍부터 작동중지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제시된 사례나 피폭자의 수기에서 산견되는 미국에 대한 증오는 일종의 사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을 뿐이고, 공식적인 언설권에서는 일찍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친미국가’ 일본의 탄생이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폭 국가인 일본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평화를 구가하고 있다는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역사의 인과론을 불러일으켜, 일본의 책임론을 환기시키는 ‘가해와 피해의 순환’을 결과적으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인 ‘전쟁조기종결론’이 한국에서는 ‘식민지조기해방론’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쟁조기종결론’을 논박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원폭 투하와 식민지 지배 사이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설명 책임을 일본사회에 묻게 되는 것이고, 이는 조선인 피폭자에 대한 책임 소재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조선인 피폭자가 ‘증거’로서 등장하고 이에 대한 일본사회의 책임이 분명해지는 1980년대까지는 ‘주체의 희석화’가 ‘가해와 피해의 순환’을 차단하는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② ‘유일 피폭국’이라는 단어는 운동단체와 국회에서 195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되었지만, 주로 신문, 자치체, 히로시마/나가사키, 국회 등에서는 1980년대부터 사용 빈도가 급증하여,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 체험을 기억하는 ‘표상어’로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은 비일본인 피폭자의 존재에 대한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무지와 병행해서 혹은 무지와 관

계없이 1980년대 이후 일본사회에 보급되었고, 냉전 해체 이후, 특히 ‘북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사용 빈도가 늘어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이 냉전의 해체 이후, 일본에서 고조된 안전보장상의 불안에서 피폭의 경험을 국민의 기억으로 다시 읽어 내려는, 일종의 주체의 국민적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사용 빈도가 급증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일 피폭국’이라는 언설은 전후 일본사회가 직면해 온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과거의 전쟁과 피폭의 역사를 ‘호출’, ‘환기’하는 과정에서 발생, 정착한 것이다. 위에서 분석한 ‘원폭 위령비 주어논쟁’이 피폭 경험의 탈국가화와 보편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은 당연히 피폭이라는 구체적 경험을 해체해, 가해와 피해의 주체를 희석화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가해와 피해의 주체를 해체/분열시키는 과정과 ‘유일 피폭국’이라는 언설의 정착과정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다시 말하면 원폭 주어논쟁에서는 주체를 해체시키지만, ‘유일 피폭국’이라는 언설은 일본 국민이라는 주체를 피해자로서 내셔널한 틀에서 복원하는 과정인 셈이다.

따라서 피폭 기억의 ‘배제’와 ‘통합’을 통한 기억의 전국민적인 집합화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높은 반핵 여론, 혹은 핵알레르기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것이 왜 ‘유일 피폭국’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는가, 혹은 ‘유일 피폭국’이라는 단어의 확산과 정착이 핵알레르기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이란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체험의 확산과 국민적 공유이며, 따라서 전후 평화주의의 한 축을 이룬다. ‘배제’란 기억의 평준화, 표준화, 국민화를 통해 ‘통합’에 의해 만들어진 기억으로부터 튕겨져 나오는 체험을 기억 공간에서 깎아 버리거나 주변화해 가는 기능을 한다. ‘개인의 기억’이 ‘집단의 기억’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목적의식적으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일 것이

다. 예를 들면 비일본인 피폭자가 피폭의 집합기억에서 배제되고, 피폭자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미국에 대한 분노도 '평화주의' 혹은 피폭 이념의 '보편화' 라는 '괴물'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 과정의 귀결이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이었던 것이다.